

AI 4번 겪은 박준영 지사, 근본 대책 촉구

동물복지형 축산업 허가기준 강화 등 7개항 정부 건의

재임기간 4번이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를 겪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년 주기로 반복되는 AI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재의 살처분과 방역으로 대표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도양 오염, 행·재정력 낭비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15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AI가 2~3년 주기로 발생, 막대한

보상금 등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업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으로 모두 7개항을 건의했다.

우선 철새 도래지 인근(10km) 닭, 오리 사육 신규허가 제한과 AI발생 위험기간인 12~2월까지 가금류 사육제한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살처

분 보상금을 보험금 일부로 지원하는 등 가축전염병 피해보험 제도도 전환할 것과 가금류 계열업체의 방역 책임 강화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예방 살처분 가금류를 도축 후 추가 감염유무 검사를 거쳐 훈제 등 2차 가공처리해 유통하는 방안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 고병원성 AI대응을 위한 연구역량 집중, 검사권한 지방 이양 등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관련 축산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더 이상 이와 같은 후진적인 대처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월 해남을 시작으로, 나주, 영암, 영광, 함평, 순천, 장흥 등 7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83개 농가 211만4000마리가 살처분돼 보상상금만 140억원으로 추산된다. 10일 이상 AI 추가신고가 없자 전남도는 향후 더 이상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방역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한승원 칼럼

4월 중순인데도 마치 5월로 들어선 듯 벌써 신록이 연두색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신록의 계절이 예년에 비해 20일쯤은 먼저 찾아온 듯싶다. 정원은 진분홍의 꽃잔디와 철쭉꽃이 만발했다. 연보라 진달래색과 진홍색 그리고 선홍색의 꽃들이 찬연하다. 매화나무에는 콩알만 한 매실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저것들이 다 호두알만 한 매실로 자랄 수 있을까. 나무가 저 매실들을 다 키워낼 수 있을까. 퇴비를 좀 주어야 하는데 이 선비는 게으르다. 매화나무에게 너무 매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매실 수확은 6월 중순에 하게 된다.

농부들은 못자리를 준비한다. 4월의 신록에 비가 내린다. 어머니 무덤에 금잔디가 잘 살았다.

이번에 낸 책이 잘 팔린다는 소식은 날아오지 않는다. 출판시장이 시르죽어 있는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생각해 보거나 머리를 굴

으로 볼 뿐 본질을 꿰어보려 하지 않는다. 깊이 사유해야 읽을 수 있는 철학적인 책이 아닌,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책, 간단히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는다.

요즘 사람들은 서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책을 산다. 때문에 대부분의 서점들은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렸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슨 책이 잘 팔리는지 검색을 하고 그것들 가운데 입맛에 맞을 듯싶은 것을 선택한다. 때문에 꼭 한승원의 책을 사야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내 책을 사 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진 책은 고집스럽게 읽지 않았다. 그 고집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었던 터이다. 나는 서점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맛을 보고 나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시골로 이사를 온 다음에는 신문 서평란을 참고하여 읽고 싶은 책들을 적어 놓았다가 조교에게 말하고 그것들을

4월 신록에 내리는 비

려 추리하려 하지 않고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알아낸 후 아는 체한다.

길을 물어도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서 찾아낸다. 이제 세상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스마트폰 바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 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복사해 오려는 일이 다반사이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을지라도 나는 소설을 꾸준히 쓴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했다. "뜻 있는 지식인이 책을 써서 전하는 것은 그것을 읽고 감동해 줄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君子著書傳唯求一人知之) 나도 그렇다. 나는 천 사람, 만 사람, 십만 사람이 읽어주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4월의 신록에 비가 내린다. 이 비 내린 다음에는 더워질 터이다. 봄을 건너편 여름이 성큼 다가올지도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다. 베스트셀러라고 소문난 책만 사서 읽고 "나도 그것을 읽었는데 이리이러한 것이 좋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긴 그러한 현상은 50년 저쪽의 내 젊은 시절에도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더한다. 삶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 삶을 현상적

인터넷을 통해 사달라고 한다. 나는 아직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줄 모른다.

"갈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오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 준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을 사람들은 갈대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책에서 한 대목을 오래 트위터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것이 반드시 트위터 맨 위에 올라와야 있도록 끈질기게 다시 올려놓고 또 다시 올려놓기를 몇 달째 반복하고 있다.

아마 '갈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모순어법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렇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정체성 지키기가 자기를 오롯하게 건설하는 것이다. 나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4월의 신록에 비가 내린다. 이 비 내린 다음에는 더워질 터이다. 봄을 건너편 여름이 성큼 다가올지도 모른다. 세월은 현기증 나게 빠르다. 출지가 덥지도 않은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부지런히 글을 써야 한다.

나는 살아 있는 한 글을 쓰고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것이다. <소설가>

오바마, 25~26일 공식 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5일(미 현지시간 14일) 발표했다. 재선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그의 임기중 4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4월25일부터 26일 사이 한국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의 회담은 25일 오후에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자 한미 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을뿐 아니라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기표대·홍보물 점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여 앞둔 15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신형 기표대와 홍보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대통령 "국정원 잘못된 관행 송구"

세정치, 남재준 원장 해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히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어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시 강력한 문책방향을 밝힘에 따라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내국동 국정원 본원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해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취 문체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 원장은 "증거서류 조작 혐의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환골탈태는 사색성, 죽어야 사는 것"이라며 남 원장 해임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목포·순천·해남 지방선거 혼탁지수 가장 높아

전남도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목포, 순천, 해남의 혼탁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혼탁지수는 지난 3월1일부터 4월4일까지 전남도내 22개 시·군 선관위가 금품수수 등 6개 선거범죄 유형별로 신고·제보 및 조치, 언론보도 현황, 입후보자 예정자 등 패널 인식 정도를 조사해 산출했다.

혼탁지수는 평균 2.07점으로, 여수시가 8.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와 순천 각각 5.93점, 해남 5.21점 순이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4.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방·흑색선전 2.96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가 1.07점이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교육감 선거의 혼탁지수가 각각 1.48점과 0.49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기초단체장은 5.33점으로 평균의 두배를 넘어섰다. 특히 목포시장 선거는 19.90점으로 전체 선거 중 가장 높았으며, 순천시장 16.67점, 여수시장 12.78점, 완도군수 11.06점, 광양시장 10.25점순이었다. 목포, 광양, 완도는 3선인 현직 단체장의 출마 제한지역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됨에 따라 혼탁지수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혼탁지수가 높은 30개 선거구를 특별 예방·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3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4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3세대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1세대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